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HERE AND NOW

가제 : 지금, 여기 - 모든 기억을 다 잃는다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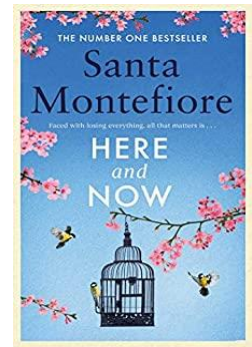
저자 : Santa Montefiore

출판사: Simon & Schuster UK

발행일: 2020년 7월 9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의 신작!

★ 네덜란드 베스트셀러 17위 / 영국, 독일, 덴마크, 리투아니아에 판권 계약

★ “산타 몬테피오레만큼 로맨스 서사를 잘 쓰는 사람은 없다.” - 조조 모에스

★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들 중 하나” - 「더 타임즈」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마리골드는 일도 척척, 가정 생활도 척척인데다가 주변 사람들까지 잘 챙기는 팔방미인이다. 함박눈이 내리는 이른 아침이었다. 마리골드는 정원에서 하얀 눈이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곧 따라나온 남편 데니스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다. 스무 살이 되던 해 만난 두 사람은 사십 년이 넘도록 변함없이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고 있었다. 마리골드와 데니스는 두 사람이 처음 손을 잡던 날에도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었음을 떠올렸다. 마리골드는 지난 날의 그런 행복한 추억을 반추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딸 수즈와 어머니, 그리고 남편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 주방 식탁에 올려 놓았다. 마리골드는 아침마다 이렇게 식구들을 챙기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었다. 올해 86세인 마리골드의 어머니 앤의 몸은 곧 부러질처럼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앤은 마리골드의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혼자 살다가 점점 어머니가 쇠약해지는 것을 걱정한 마리골드와 데니스의 설득 끝에 딸의 집으로 이사 와 함께 살게된 것이었다. 앤은 사위와 딸에게 여러 요구 조건도 많았고 까다롭게 굴며 툭툭거리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꽤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리골드 역시 돌봐야 할 사람이 생긴 것이 좋았다.

마리골드에게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직도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스물 다섯 살 딸 수즈가 있었다. 수즈는 SNS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콘텐츠로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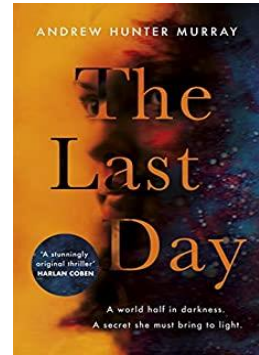
돈을 벌고 있었다. 아직까지 그녀는 부모의 품으로부터 독립할 생각은 전혀 없어보였으며, SNS 활동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보내고 있었다. 한편 마리골드의 첫째 딸 데이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이탈리아인 남자친구를 만나 밀라노에서 일하며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마리골드는 첫째 딸에 대한 걱정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날 아침 마리골드는 데이지로부터 걸려온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게 된다. 데이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며 지금 영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마리골드는 데이지의 남자 친구가 일곱 살 연상이긴 했지만, 예술가답게 로맨틱하고 매력적인 데이지의 남자친구에게 우호적이었으며, 그들의 사랑이 오래갈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이제 데이지는 그와의 6년 간의 관계를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마리골드와 데니스 부부에게 다 자란 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그러나 마리골드는 아직도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과 자신의 역할이 있음에 만족하며 기쁘게 가족을 돌본다. 하지만 수즈와 데이지는 엄마에게서 예전과는 영 다른 점들을 발견한다. 매해 크리스마스 때마다 직소 퍼즐을 만드는 것은 가족의 전통이었고, 특히 마리골드가 이 중에서 직소 퍼즐에 가장 뛰어났는데, 어째서인지 1월이 다 되어가도록 퍼즐에 손도 못 대는 마리골드의 모습에서 데니스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다. 결국 걱정된 가족은 마리골드를 병원에 데려가고 그녀는 ‘노인성 치매’ 진단을 받고 만다. 그리고 마리골드는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 데니스를 비롯한 딸의 도움과 돌봄을 받는 입장이 된다. 마리골드는 이 낯선 상황에서 점차 자신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빠지지만 자신이 기억을 잃는다고 해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녀를 잊지 않고 기억해준다면 그녀의 인생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는다. 단순히 늙어가는 것 이상의 노년이 주는 두려움과 가족의 사랑에 관한 감동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산타 몬테피오레 (Santa Montefiore)는 영국에서 태어났고 역시 작가인 시몬 세벡 몬테피오레와 결혼 해 런던에서 두 자녀를 함께 키우며 살고 있다.

제목 : THE LAST DAY
가제 : 지구가 멈췄다
저자 : Andrew Hunter Murray
출판사: Hutchinson
발행일: 2020년 1월 6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 2억 번 다운로드를 기록한 인기 팟캐스트 “No Such Thing As A Fish”의 진행자의 독창적인 아포칼립스 스릴러!
- * “인상적인 디스토피아 스릴러인 이 책은 극적으로 변해버린 런던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영국의 고립주의, 영국의 미래에 대한 잔인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 「가디언」
- * “묵시록적인 서사와 스파이 이야기를 섞어 놓은 화려한 데뷔작” - 「데일리 익스프레스」

2059년, 지구는 회전을 멈췄다. 지구의 절반은 공중 얼어붙어 맹추위의 밤이 계속되고, 나머지 절반은 불타는 태양이 이글거릴 뿐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이 없다. 그 틈 사이, 완전한 밤도 낮도 아닌, 황혼의 지역에서만 여전히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땅 중 하나였지만 온 세계로부터 고립된 영국에 사는 주인공 엘렌 호퍼는 죽어가고 있는 옛 스승이 보낸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된다. 그 편지 속에는 엘렌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지도 모르는 어두운 비밀이 담겨 있다. 지금껏 보았던 아포칼립스 문학과는 확실히 다른 흥미로운 소설이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지구의 회전 속도는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고 지구상 거의 모든 곳이 황폐화되어 버렸다. 그 후 운이 좋았던 특정 지역 국가들의 독재자들이 30년 간 세계의 권력을 장악했고, 이 기회를 그 어떤 국가들보다 잘 활용한 곳이 바로 영국이었다. 그리고 영국을 제외한 서유럽은 '빵 바구니'라고 불리며 영국 정부에서 범죄자들을 강제로 보내버리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미국에서는 아직 많은 인구가 살아 남아 있었고 핵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영국의 최대 눈엣가시였다.

과학자인 엘렌 호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망명국인, 세계 최강대국 영국의 남쪽 해안이자 북대서양의 석유 굴착 장치에서 해저와 물의 흐름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구한다. 엘렌은 이혼의 아픔을 극복하고 연구와 일에만 모든 시간을 다 쏟아 부는다. 그녀는 ‘빵 바구니’로 갈 뻔했다가 무사히 이곳으로 온 한 청년을 포함해 사연 많은 동료들과 함께 연구한다. 종종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떠났다가 결국 굶주림과 혹독한 날씨로 모두 죽는 바람에 유령선이 되어버린 배를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배를 발견할 때마다 동료들과 배 안에 쓸만한 물건들이나 남은 식품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배 전체를 소각했다. 엘렌은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해진 동료들과는 달리 불편한 기분에 빠지곤 했는데 오늘 그녀가 심란한 것은 단지 그 배 때문이 아니라 얼마 전 받은 한 편지 때문이었다. 그 편지는 엘렌의 옛 대학 은사인

에드워드 쏬이 보낸 편지로 그는 자신은 이제 죽어가고 있으며 엘렌에게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비밀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엘렌은 막상 눈 앞에 닥친 빙산들의 위협을 처리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수십 번이나 반복해서 읽은 그 편지의 단어 하나 하나까지 머리 속에서 쉽게 지을 수가 없었다. 그는 편지에서 지난 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오직 엘렌뿐이며 꼭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말하며 편지에 적힌 주소로 은밀히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엘렌은 쏬 박사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물 한 컵을 들이켰고 그 순간 배 위로 가까이 다가오는 헬리콥터를 발견한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사람은 슈위머 대위로, 종종 상부 보고 차 이곳에 오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엘렌을 만나기 위해 런던에서 방문객을 데리고 왔다. 자신을 영국 내무부 소속 직원인 루스 워릭이라고 소개한 그 방문객은 엘렌에게 둘이서만 따로 이야기하는 자리를 요청한다. 루스는 오랫동안 영국 정부를 위해 헌신해온 쏬 박사의 마지막 소원대로 엘렌을 런던으로 데려가 그를 만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이곳까지 온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엘렌은 루스와 영국 정부를 결코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쏬 교수를 만나기 위해 런던으로 향한다. 엘렌은 곧 쏬이 오랜 시간 정부를 위해 봉사했지만 가차 없이 해고당했고 현 정부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비밀은 갑자기 회전을 멈춘 지구와도 관련이 있는 일이었다. 또한 엘렌은 영국이 전체주의적 규율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과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법을 어길 경우 가혹한 형벌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는 곧 수상한 요원들에 의해 자신이 미행 당하고 있으며 전 남편이 이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쏬이 말한 사실과 관련이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런던을 탐색한다. 그러던 한 집에서 완전히 잠겨져 있는 한 방을 발견한다. 엘렌은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멈춘 지구와 독재 정부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낼 수 있을까? 참신하고도 흡입력 있는 아포칼립스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앤드류 헌터 머레이 (Andrew Hunter Murray)는 BBC2의 방송 작가이며 총 2억 번이나 다운로드된 팟캐스트 프로그램 No Such Thing As A Fish의 진행자이다. 그는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제목 : LAKE LIFE

가제 : 레이크 하우스 - 내 가족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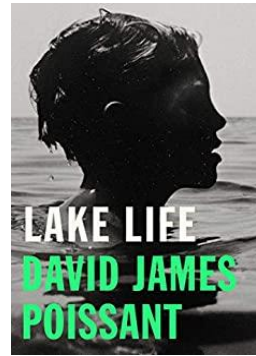
저자 : David James Poissant

출판사: Simon & Schuster

발행일: 2020년 7월 7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



* 평단의 극찬을 받은 작품이자, 아마존 선정 올해의 'Best Book'이었던 『The Heaven of Animals』의 작가의 신작

* "저자는 가족의 삶 바로 아래에 있는 결점들을 짚어내는 연대기를 쓰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Weather』의 저자, 제니 오필

* "한 중산층 가족의 말 못할 꿈들과 비밀, 자기 기만에 대한 감동적인 소설" - 『Ill Will』의 저자 댄 차온

스타틀링 가족은 뽀뽀이 흠어져 산다. 리처드와 리사, 스타틀링 부부는 뉴욕에 거주하고, 영업사원인 첫째 아들 마이클은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 다이앤과 함께 달라스에서, 야심찬 시인인 둘째 아들 타드는 남자 친구 제이크와 함께 뉴욕에서 지낸다. 그러던 어느 날 스타틀링 가족은 여름 휴가를 맞아 가족 별장인 노스캐롤라이나의 '레이크 하우스'에 모이게 되고 호수보다 더 깊은 가족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리고 점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비밀까지 다 드러나면서 켜켜이 쌓여 있던 진실과 갈등이 터져 나온다. 치밀한 감정 묘사가 돋보이는 사랑과 상실, 가족에 대한 소설이다.

서른 세 살 마이클은 가족 별장에서의 마지막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 곳 레이크 하우스로 온다. 그의 부모님인 리처드와 리사는 가족들에게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은퇴 후, 레이크 하우스가 아닌 저 멀리 플로리다에서 여생을 보낼 것이며 이 별장을 이미 매물로 내놓았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코넬 대학에서 각각 조류학자와 수학자로 재직 중인 리사와 뜨거운 해벌의 플로리다보다는 산과 호수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가 더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이클은 부모님의 선택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마이클은 오랜만에 아버지의 보트 위에 앉아 호숫가의 아침 풍경을 즐기며 내면의 문제를 잠시나마 잊으려 했다. 하지만 평화롭고 조용하기만 한 했던 호수에 갑자기 큰 배가 정박하고 선상 파티까지 열며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댔다. 마이클의 가족은 다 호숫가로 나와 물놀이를 했지만 마이클과는 달리 아무도 그 시끄러운 배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마이클은 그 때, 배 위에 있는 네 다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아이를 발견한다. 그 아이는 가족들과 떨어져 한 손에는 과자 봉지를 들고 한 손으로는 마이클을 향해 욕을 뜻하는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마이클은 당장이라도 아이의 무관심한 부모에게 헤엄쳐 다가가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알코올중독자인 그는 어제부터 부모님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술을 마시지 못해 머리가 어지러워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마이클은 살면서 단 한번도 아이를 갖길 위한 적이 없었고, 아이 없이 결혼 생활을 하기로 아내 다이앤과 결정했다. 하지만 마이클의 계획과는 달리 다이앤은 덜컥 임신해버렸고 마이클은 비논리적이게도 그런 아내를 원망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빛나는 젊음을 누리고 있는 동생 타드와 그의 남자친구이자 스타 화가 잭의 매력과 젊음이 부러웠다.

이윽고 마이클은 다시 소년과 눈이 마주쳤고 그 소년은 그를 향해 웃더니 갑자기 물 속으로 떨어졌다. 소년을 보고 있던 것은 오직 마이클뿐이었고 그의 외침에도 사람들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옷과 신발을 벗고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지만 나중에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이 무의식적인 생존 본능에 의해 소년을 발로 차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이제 곧 아버지가 될 것이었고 그의 목숨은 이제 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리사는 앰불런스를 불렀고 왜 이런 일들이 하필 이 별장에서의 마지막을 기념하기로 한 이 때에 일어났는지 한탄했다. 사실 그녀는 남편 리처드가 불륜을 저지른 것을 알고 있었고 피부암에 걸려 투병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내리쬐는 플로리다에서 은퇴 생활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을 정죄하고 결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는 아들들에게는 단 한번도 말한 적 없었지만 이 별장에서 태어나 2개월 밖에 살지 못하고 유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숨진 딸을 애도하며 이 집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마이클은 이웃 소년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내면에 감추고 있던 고통들을 가족 앞에서 다 보이기 시작하고 타드는 제이크가 주장하는 구속되지 않는 열린 관계에 대해 갖고 있던 반감을 폭발시키고 만다. 가족 사이의 오랜 갈등과 비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이들은 지옥 같은 휴가를 함께 보내게 된다. 이 가족은 과연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게 될까?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가족의 특성을 잘 그려낸 가족 드라마이다.

<저자 소개>

데이비드 제임스 포아썸(David James Poissant)의 작품은 5개의 언어로 번역 출판된 바 있으며 GLCA New Writers Award, Florida Book Award를 수상하고 PEN/Robert W. Bingham Prize와 Los Angeles Times Book Prize의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된 바 있는 『The Heaven of Animals의』 저자이다. 또한 그는 The Atlantic Monthly, The Chicago Tribune, New York Times등 주요 매체에 글을 기고 하고 있으며 현재는 플로리다의 한 대학에서 MFA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다.

제목 : GIRL GONE MAD

가제 : 하피스: 잔인한 여자들 -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쫓아오는 과거의 그림자. 죄책감인가, 복수인가?!

저자 : Avery Bishop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20년 9월 1일

분량 : 411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USA Today 베스트셀러 작가의 신작!**

*** 괴롭힘, 파괴적인 십대들의 우정, 의혹 및 강박 관념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예기치 않은 결말에 이르기까지 독자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것이다."** -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Dear Wife』의 저자 김벌리 벨

*** “못된 소녀들, 어두운 비밀 그리고 복수에 관한 이야기” - 『A Stranger on the Beach』의 저자, 마이클 캠벨**

주인공 에밀리 베넷은 펜실베이니아에서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는 치료사로 일한다. 하지만 그녀 역시 어린 시절 자신이 저질렀던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과거에 그녀는 자신들과 어울렸던 친구들과 함께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단순한 괴롭힘 그 이상의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지금 당시 에밀리와 함께 했던 친구들에게 차례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다. 이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죄 많은 과거의 그물에 갇혀 가기 시작하는 한 여자와 십대 또래 문화의 잔인성, 후회,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 날, 그레이스는 에밀리 베넷을 포함한 여섯 명의 친구들로 이루어진 '하피스(harpies: 잔인한 여자들)'라는 그룹이 떠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나무에 묶인 채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아직 밤 공기가 차가운 이른 봄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그레이스는 밧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 치면서 자신에게 침을 뱉고 모욕을 준 소녀들이 다시 돌아와 나무에서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14년 후, 스물 여덟 살의 에밀리는 치료사가 되었고, 새 환자를 만난다. 그 아이는 ‘클로에 키터만’이라는 열 세 살 소녀로 얼마 전 자살 시도를 하는 바람에 이 곳에 온 것이었다. 클로에는 초여름에 접어들어 꽤 더운 바깥 날씨에도 불구하고 손목에 난 상처를 가리기 위해 두꺼운 후드 티를 입은 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에밀리는 본격적으로 클로에의 마음을 열기 위해 혹시 어떤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 누군가에게 혹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지 조심스럽게 물었고 클로에는 아직 입을 열진 않았지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이 에밀리의 전화는 계속 울리고 있었고 에밀리는 상담을 마친 후 엄마로부터 여러 전화와

메시지들이 도착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엄마가 전한 소식은 에밀리와 같은 학교에 다녔던 올리비아 캠벨이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에밀리의 엄마는 집에 찾아온 에밀리를 만나자마자 옛 학교 친구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가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사실 에밀리는 학창 시절 친구들과 모두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더 이상 과거와 얽히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올리비아의 죽음과 옛 친구들에 대해 생각한다. 올리비아는 에밀리와 맥켄지, 엘리제, 코트니, 데스티니 총 6명으로 이루어진, 당시 학교에서 잘나가는 여자아이들의 그룹이었던 ‘하피스’의 멤버들이었다. 에밀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에서 최대한 먼 곳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려 했고 대학에 간 후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기억은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묻고 살아왔다. 에밀리는 곧 낮잠이 들었고, 옛 중학교 복도 끝에 서 있는 한 여자 아이의 손목에서 핏방울이 똑똑 떨어질 때마다 폭탄 소리가 나는 끔찍한 꿈을 꾸었다. 이 년 전부터 자신 역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던 에밀리는 자신의 상담사 리사를 찾아가 이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밀리의 과거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 리사는 꿈속의 그 여자 아이가 바로 에밀리와 친구들이 괴롭혔던 아이들 중 하나인 ‘그레이스 파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에밀리가 청소년 상담 치료사가 된 이유도 그레이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고, 그레이스와 그녀의 엄마가 종적을 감춘 이후 꽤 많은 돈을 들여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한 적도 있었다.

에밀리는 올리비아와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새 환자인 클로에와 상담을 한 직후 바로 올리비아의 소식에 대해서 알게 된 것과 악몽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만 같아 왠지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나마 유일하게 아직까지 연락이 닿았던 친구인 코트니의 연락을 받았고 망설임 끝에 올리비아의 장례식장에 함께 가기로 한다. 장례식장에서 에밀리는 코트니와 함께 올리비아의 여동생을 카렌을 만났고 카렌은 언니의 죽음에 대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들려준다. 올리비아가 최근에 악혼자 필립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바람 핀 상대 여성이 보낸 편지를 보고 충격에 빠져 자살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올리비아는 그 상대 여성에 대해 아무런 욕도 하지 않았고 다만 ‘귀신’이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에밀리와 코트니는 본능적으로 그 귀신의 존재가 혹시 그레이스가 아닐런지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었다.

그 후 에밀리의 친구들은 또 하나씩 의문의 죽음을 맞이 시작하고 에밀리는 그레이스와 생김새가 비슷한 여성을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에밀리는 정말 자신이 그레이스를 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죄책감 때문에 미쳐가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다. 결국 남은 친구들은 한 마디 말이 사람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 정말 그레이스가 복수라도 하기 위해 다시 나타난 것일까? 소름 돋는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에이버리 비숍 (Avery Bishop)은 12 개가 넘는 소설을 쓴 USA Today 베스트셀러 작가의 가명으로 알려져 있다.

NON-FICTION

제목 : AMBASSADORS

가제 : 외교의 대가들 - 외교 역사의 발자취와 그 주역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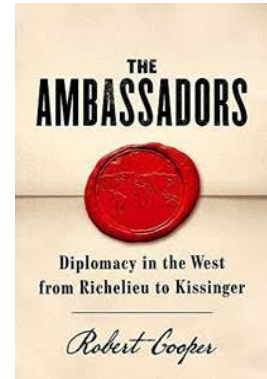
저자 : Robert Cooper

출판사: W&N

발행일: 2021년 1월 18일

분량 : 544 페이지

장르 : 정치, 역사



*** 프랑스의 훌륭한 정치가 리슐리외부터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탁월한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키신저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서구의 외교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의 업적을 통해 현재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드러낸다!**

인류의 역사는 결코 직선 방향으로 곧게 흘러가지 않는다. 역사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무수한 우연을 거둬들이며 만들어지는 것이다. B.C. 400년 경의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에서 마키아벨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변화해왔다.

지금도 외교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베테랑 외교관인 이 책의 저자 로버트 쿠퍼는 이 책을 통해 이 험난한 여정과 우연을 쌓인 현재를 형성한 '외교의 역사'에 대해 살펴본다. 그는 주로 외교 역사상 발생했던 수많은 문제들과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의 성격, 다양한 생각들이 한 곳에서 만났던 구체적인 지점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이 불확실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종종 엇나간 시각,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잘못 결성된 동맹국,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 의도와 달리 엇나간 결과들을 얻게 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외교 역사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지속적인'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한다.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탁월한 외교 전문가였던 리슐리외와 이탈리아 태생의 프랑스 유명 정치인이었던 마자린이 살았던 세상은 현대를 사는 우리가 결코 상상조차 못할 다른 세계였다. 하지만 저자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통해 오늘날 유럽이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1815년에 열렸던 비엔나 의회와 그곳에 참가했던 프랑스의 국회의원 탈레란트는 오늘날 세계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단서들을 제공한다. 탈레란트는 미국에 주목한 최초의 유럽인 정치가였다. 또한 이 의회에서 그가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노예 무역에 관한 인도주의적 질문을 던진 덕분에 이후 이러한 인도주의 문제는 유럽 외교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저자의 독창성과 우아함이 특징인 이 책에는 현대 유럽의 초기 외교 역사뿐만 아니라 냉전 시대의 서방 세계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베빈, 마샬, 트루먼과 같은 주요 인물들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 또한 포함되어 있다. 저자는 냉전 시대에 가장 극적인 드라마였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비롯해 케네디가 자신의 결정의 당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스크바의 기밀 시스템과 협력했던 일화, 전후 세계의 중추적인 인물이자 외교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저서를 남긴 헨리 키신저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통해 역사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 조각들의 의미와 연관성들에 대해 살펴본다. 현 세계의 모습을 만들어 낸 외교의 역사에 대해 들여다보는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서문: 이 책을 읽는 방법

1장. 리슐리외와 마자린 : 국가 건설

2장. 탈레란트 : 타협하지 않는 마음

3장. 두 개의 작은 국가: 덴마크와 핀란드

4장. 조지 케난 : 발로 뛰는 군인

5장. 올림픽 선수들: 베빈, 마샬, 애치슨

6장 모넷 : 실용적인 상상력

7장. 쿠바 미사일 위기

8장. 헨리 키신저 : 이론과 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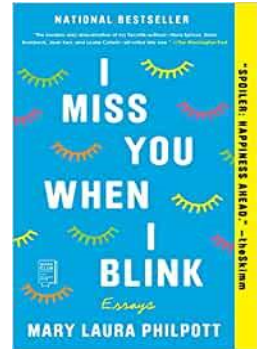
9장. 독일 외교: 아데나우어 및 브란트와 콜

10장. 외교관과 홀로코스트

<저자 소개>

로버트 프란시스 쿠퍼 경은 (Robert Francis Cooper)은 현재 미얀마와 관련하여 유럽 위원회의 특별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국 외교관 겸 고문이다. 그는 또한 유럽 외교 협의회 회원이며 국제 관계에 대한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Prospect에 여러 기사를 기고하고 있으며 저작으로는 Orwell Prize 수상작인 『The Breaking of Nations』과 『The Post-Modern State』가 있다.

제목 : I MISS YOU WHEN I BLINK
가제 : 완벽한 사람 말고, 행복한 사람
저자 : Mary Laura Philpott
출판사: Simon & Schuster USA
발행일: 2020년 5월 9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미 전역 베스트셀러**

*** 완벽주의자로서의 삶에 대한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재미있고 매력적인 회고록이다. 저자는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여성들의 삶의 보편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앤 파켓**
*** "우리가 있었던 곳, 우리가 가고 있는 곳, 우리가 정말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 엘리자베스 길버트**

이 회고록의 저자 매리 로라 필롯은 완벽한 여성성을 갖춰야 한다는 압박에 갇혀 살아왔다. 그녀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고 결코 충족되지 않을 성공을 향한 욕구에 시달렸다. 그녀는 인생의 경주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견뎌야 할 불안과 고통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애초에 이 완벽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우등생이었던 저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해야 할 리스트를 다 만든 다음 그 리스트에 있는 모든 것을 실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후, 매년 다른 체크 리스트를 만들고 자기 자신 또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 저자는 아주 오랫동안 자신은 인생의 모든 비밀을 알아냈으며, 언제나 자신의 결정은 옳고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인생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 가령 취업,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같은 과제들을 다 이루고 나자 그녀는 만족감과 성취감 대신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저자는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린 아이와 같은 감정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넘쳐나는 일정들로 가득한 달력, 엄청난 이메일,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 대화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삶의 질서를 지키며 해야 하는 일들을 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대체 어느 부분에서 자신이 실패하고 있는지 고민했다.

저자는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가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만 일어나거나 중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며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문득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불만이 생겼다고 해서 그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곳에 서

있는지 자아에 대해 탐색해 볼 것을 강력히 추천하는 감동적이고 섬세한 회고록이다.

<목차>

- 1장. 눈을 감박일 때마다 당신이 그리워요.
- 2장. 행복해지기 위한 모든 것
- 3장. 완벽한 살인 무기
- 4장. 원더우먼
- 5장. 로브스터맨
- 6장. 인어와 운명
- 7장. 사라지는 법
- 8장. 독
- 9장. 잘했어
- 10장. 이 남자

<저자 소개>

메리 로라 필롯 (Mary Laura Philpott)는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Paris Review Daily, O The Oprah Magazine, Real Simple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해오고 있다.

제목 : THE BOTTOM UP REVOLUTION

가제 : BOTTOM-UP: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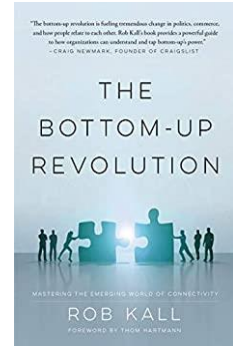
저자 : Rob Kall

출판사: Beaufort Books

발행일: 2019년 5월 9일

분량 : 284 페이지

장르 : 경영



★ "이 책은 대안적 현실로 나아가는 향해 그 자체이다!" - 「Free Press」

★ "철학과 경제 및 생태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은 탐구를 바탕으로 저자는 어떻게 새롭고도 보람 있는 방식으로 공동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알려준다."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매리 파이퍼

버락 오바마, 버니 샌더스, 힐러리 클린턴, 조지 W. 부시, 리처드 브랜슨 경, 스티브 잡스, 마크 주크버그는 변화나 성장이 '바텀-업(bottom-up, 전반적인 원칙보다 먼저 세부적인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상향식 문제 해결 방법)' 방식을 이용해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바텀 업 방식은 무엇이며 이 방식의 장점들은 무엇일까?

우리 문명은 여태까지 '탑-다운식(하향식)' 위계 질서 하에서 발전해왔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롭 콜은 기존의 탑 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앞서 말한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같이 바텀 업 방식의 잠재력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상향식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미디어에 도전하는 'OpEdNews.com'의 설립자이기도 한 그는 우리 인류가 처한 가장 큰 문제인 경제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또 낙관적인 관점으로 인터넷이라는 세계에 대해 분석한다.

그는 오랫동안 문화, 정치 및 기술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가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우리를 바꾸어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특정 세대가 다른 세대의 사람들 보다 더 개방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했다. 그리고 바로 이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여정을 이어갔다.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존 세대와 아예 다른 두뇌 회전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실제로 많은 신경 과학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 자신의 추측과 가까운 결론을 얻었다.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서로 다양한 상호 작용의 세계에 개방되어 있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길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그가 주목했던 인터넷의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인터넷에 그리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1980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향식 성장법에 익숙하고 이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 저자는 상향식 사고 방식은 일종의 새로운 지능이며 새로운 세대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이 세대들은 공유와 협력하는 방식, 상호 의존성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1980년대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정말 기성 세대들과 다른 뇌 기능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7백 만년 동안 공고했던 인류의 사고 방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알려주는 안내서로 비즈니스, 리더, 조직, 활동가 및 개인들에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분석론을 제공해 줄 책이다.

<목차>

서문: 바텀 업, 탑 다운에 대한 기본 지식: 연결 의식과 우리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1장. 상향식 사고방식의 뿌리, 과학 및 차원들 그리고 하향식 사고와 행동

2장. 연결 혁명, 연결의 힘과 역학

3장. 하향식 및 상향식 언어, 스토리 및 신화의 힘

4장.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위한 상향식 사고와 전략 적용

5장. 상향식 혁명, 힘과 정부, 정치, 외교, 운동에 대한 접근 방법들

6장. 상향식 저널리즘, 미디어, 예술 그리고 연예

7장. 상향식, 하향식 경제, 자본주의를 넘어선 세계주의

(이하 생략, 총 9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롭 콜 (Rob Kall)은 수상 경력이 있는 기자이자, 발명가 소프트웨어 설계자, 커백터 및 비전 전문가이다. 그는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CNN, ABC, the HuffPost, Success, Discover등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었다. 또한 그는 Fortune 500대 임원과 국가 의료 및 심리 조직을 대상으로 한 토론과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최초로 긍정적 심리학, 뇌 과학 및 이야기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쇼인 Bottom up Radio Show에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흥미로운 사람들을 게스트로 초대하고 있다. 또한 그는 구글 인기 검색어로 등록된 OpEdNews.com 사이트의 개설자이다.

제목 : THE FLASH CRASH

가제 : 나빈데르 플레이: 2010년 금융 위기의 중심에는 그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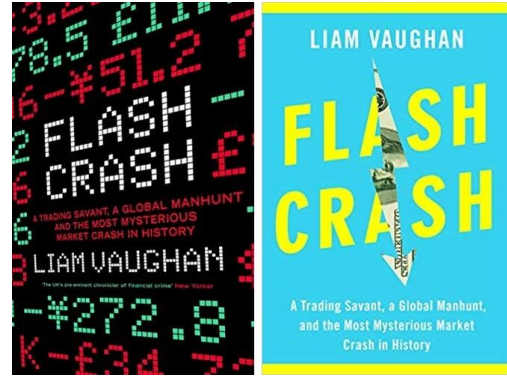
저자 : Liam Vaughan

출판사: William Collins

발행일: 2020년 5월 14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회고록, 경제



★ 아마존 베스트 셀러!

★ "현재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생생한 폭로!" 『Moneyland』의 저자 올리버 볼로프

★ 미국 정부가 전례없는 시장 붕괴를 촉발시켰다며 자신을 비난할 때까지 어린 시절 침대 밑에 숨겨두고 돈을 모으기 시작해 무려 7천만 달러를 모으는데 성공한 한 신동 '나빈데르 사라오'에 관한 이야기

2010년 5월 6일, 전세계 금융 시장은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이 동시에 폭락했고 그 결과 단 5분 만에 1조 달러의 평가액이 손실되었다. 이 사건은 일명 '플래시 크래쉬 (Flash Crash, 주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폭락 현상)'는 라고 불리는 현상들 중 가장 극적이고 빠른 변화를 일으킨 현상이었다.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주가가 반등하자 전세계 금융 전문가들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를 경험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대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마치 영화 'THE BIG SHORT'를 떠올리게 하는 이 사건의 중심에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 '나빈데르 사라오'가 있었다.

나빈데르 사라오는 처음 얼핏 보기에는 전혀 세계 금융 시장의 핵심을 좌지우지 할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런던 서부의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자란 나빈데르는 마치 시장을 컴퓨터 게임처럼 가지고 놀 수 있을 만큼 타고난 재능을 가진 장사꾼이었다.

서른이 된 그는 런던의 무역 아케이드를 떠나 어린 시절 살았던 집 근처로 돌아가 다시 삶을 시작했다. 그는 초고속으로 이루어지는 전자 거래 시장에 침투해 마침내 엄청난 이익을 얻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공고한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반격을 가했다. 그는 2015년 FBI가 그의 현관문을 두드리던 그 순간까지 이런 식으로 활동했다. 이 문제적 인물은 어떤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월가의 폭정을 주도하고 다른 금융 엘리트들의 손에 있던 금융 시스템에 매서운 채찍질을 한 영웅 혹은 아웃사이더로 보일 수 있는 다채로운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블룸버그 기자인 저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수학적 능력, 누구든 흘릴 수 있는 언변과 수천만 달러를 가진 재력가인 나빈데르 사라오가 벌인 금융 스릴러 같은 이 놀라운 사건과 이 국제 사기에 대한 전 세계적 수사 및 이 일들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준다.

<목차>

- 1 장. 압박감 속에서도 잘 해내기
- 2 장. 배관 청소 용구와 소년
- 3 장. 망했다
- 4 장. 첫 번째 거래
- 5 장. 로봇들의 부상
- 6 장. 한 시대의 끝
- 7 장. 두 번째 거래
- 8 장. 위장에 관한 짧은 역사
- (이하 생략, 총 25 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리암 보건 (Liam Vaughan)은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탐사 보도 전문 기자이자 Bloomberg 및 Businessweek 잡지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 하고 있다.

제목 : FOOD ADULTERATION AND FOOD FRAUD

가제 : 믿고 드실 수 있겠어요?: 식품 사기를 폭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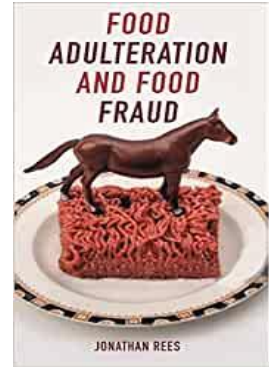
저자 : Jonathan Rees

출판사: Reaktion Books

발행일: 2020년 1월 13일

분량 :176 페이지

장르 : 건강, 환경



***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고 먹고 마시는 것들 뒤에 어떤 암흑의 사슬이 얹혀 있는지, 우리를 서서히 죽일 지도 모르는 식품 관련 사기에 관한 냉철한 고발서**

누군가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 혹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레트로 식품을 먹는 것은 언제나 신뢰에 기반을 둔 행위였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기미상궁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세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에도 언제나 독극물이 음식에 들어 있는지 먼저 황실 사람들의 식사를 시범적으로 먹어보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조나단 리스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독성 물질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 혹은 우리가 먹지 않는 음식은 서서히 우리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먹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부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미 누군가가 요리했거나 타인이 기르고 생산한 것을 먹게 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음식은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몸으로 곧바로 흡수된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훨씬 신경을 써서 먹을 거리를 고르고 정한다.

저자는 이제 사람들이 적어도 음식을 통해 독살당할 위험은 거의 없지만, 오늘날처럼 음식으로 속고 속이기에 딱 좋은 시대가 없다고 말한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슈퍼에 갈 때마다 화학 검사 키트를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신뢰만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농부가 판 식재료와 음식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식품 공급 산업이 커지면서 사업 자체가 복잡성을 띠게 되었고 생산자와 판매자의 물리적인 거리 또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저자는 미국의 꿀 세탁 스캔들부터 무려 40년간이나 냉동된 상태였던 중국 밀수입 좀비 고기, 영국에서 말고기를 소고기로 속여 판매된 기상천외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최근 들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식품 사기 사건에 대해 들려준다. 또한 저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이 먹이 사슬이 복잡해진 그 원인과 이 구조가 저질 식품 생산과 음식 사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다. 그는 전세계, 모든 종류의 식료품을 다루면서 기상천외한 유형의 식품 사기 사건들, 정부 규제의 역할 및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너무 편리하고 싼 음식만 찾느라 중요한 진실을 무시할 경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들려준다. 대담하고 냉철한 분석과 고발을 담은 이 책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경고하면서 이 시대에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준다

<목차>

서문: 신뢰의 문제

1장. 부분적인 대체품들

2장. 오염된 음식

3장. 위조 식품 및 완전한 대체품들

4장. 장소의 중요성

5장. 테스트

6장. 정책, 전략 및 입법

결론: 저질 식품들과 문화

<저자 소개>

조나단 리스 (Jonathan Rees)는 콜로라도 주립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이다. 음식의 역사에 관한 그의 전작으로는 『Refrigeration Nation』 과 『Before Before Refrigerator 』가 있다.

제목 : THE SIMPLE LIFE GUIDE TO DECLUTTERING

가제 : 중요한 것만 남기세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인생 정리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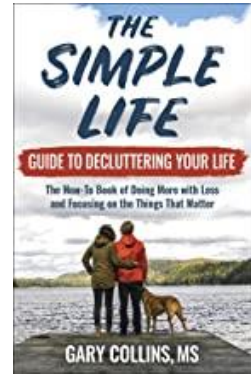
저자 : Gary Collins

출판사: Book Publishing Company

발행일: 2019년 6월 1일

분량 : 152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원하는 삶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삶의 영역을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독창적이고 색다른 안내서" - 마르타 매드하반**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불필요한 스트레스들과 쓸모 없는 물건 더미 속에서 때때로 압도되는 느낌에 휩싸이곤 할 것이다. 또는 나의 이상과 성격, 환경에 맞지 않는 성공 기준에 맞춰 눈코 뜰 새 없이 마구 달리다 보면 지치기도 할 것이고 문득 사회적인 기대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는 법이 궁금해지는 순간도 찾아 올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중요한 일을 때맞춰 해내려고 애쓰다 보면 매일 해내야 하는 일상의 작은 일들마저 제대로 하지 못해 한숨만 폭폭 내릴 수 밖에 없을 때도 물론 있을 것이다.

작가이자 디지털 유목민인 저자 개리 콜린스 역시 이런 숨막히는 하루들을 견뎌내야 했고 결국 마음의 짐을 질 필요도 없고 사회적 기준에 맞출 필요도 없는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기 위해 어느 날, 안정적이긴 하지만 만족감은 전혀 얻을 수 없었던 직장을 떠나 새로운 삶의 전성기를 맞는데 성공했다. 그는 이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번아웃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의하고 난 후 모든 이들이 각자의 삶에 맞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단계별 과정을 소개하는 이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누구나 실행하기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매우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제공한다. 얼핏 보기에는 너무 직접적이고 말이 안되 보이는 이 조언들을 통해 그는 삶의 우선 순위를 재정렬하고 매일 반복되는 지겨운 좌절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새로운 목적을 향한 길을 제시하는 이 책은 우리에게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 실제로 자유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 나의 목적과 비전을 밝히기 위한 영감을 줄 롤 모델들
- 돈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 줄 돈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신선한 관점
-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내 삶을 정리하는 법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오랜 기간의 실제 테스트를 거쳐 검증된 신선한 관점을 제공하는 심플한 인생 가이드북이다.

<목차>

서문: 이 책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1 장. 나의 이야기: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내 인생을 단순화하는 법

2 장.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데!

3 장.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한 5 가지 주요 원칙

4 장. 목적 찾기: 평생 질문, “난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5 장. 건강을 망치다: 가장 큰 방에 있는 코끼리!

6 장. 재정 낭비: 궁극적인 자유의 길

7 장. 사회적 관계망 정리하기: 불필요한 삶의 드라마를 피하자.

8 장. 쓸 데 없는 것을 마음에서 비워버리자.: 내 두뇌는 쓰레기 통이 아니니까 쓰레기를 그만 채우자.

(이하 생략, 총 13 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게리 콜린스 (Gary Collins)는 Simple Life 시리즈를 통해 성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고 오랜 테스트를 거쳐 완성된 유용한 인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전작으로는 『Going Off the Grid』, 『Living Off the Grid』, 『The Simple Life Guide to RV Living』이 있다.